

광주 주택시장 '활황'에 구도심 재개발 '활기'

■ 광주 재건축·재개발 현황

구역	시공	사업진행현황
□ 동구		
학동3	현대산업개발	착공
계림5-2	두산건설	시행인가
계림7	제일건설	시행인가
지원2-1	보광건설 외 1	시행인가
산수1	대광건설	시행인가
계림8	호반건설	시행인가
계림4	영무건설	조합설립
계림2	라인건설	조합설립
학동4	현대산업개발	조합설립
지원1		조합설립
동명1		구역지정
지산1		추진위 결성
계림5-3		-
산수2		-
□ 서구		
미륵지평	SK뷰	착공
광천동		조합설립
양동3		추진위 결성
□ 남구		
월산1		조합설립
월산2		추진위 결성
서동1		기본계획
□ 북구		
문화동·각화	골드클래스	착공
풍향2	금호어울림	착공
임동2		조합설립
우산	GS건설·금호건설	조합설립
중흥3		조합설립
중흥		구역지정
풍향		구역지정
□ 광산구		
신가동		조합설립
동서작		추진위 결성
운남		추진위 결성

30곳 개발...9곳 시공사 선정·5곳 시행인가

동구 14곳 '최다'...지원 2-1·계림2구역 연말 분양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재건축·재개발건축구역이 잇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와 건설사에 따르면 최근 광주 주택재개발구역 가운데 9곳이 시공사를 선정했고, 5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구 지원2-1구역은 보광건설(골드클래스)을 시공파트너로 선정했으며, 오는 12월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다. 지원2-1구역은 사업 면적 3만3445㎡에 아파트 716가구 등을 신축한다.

계림5-2구역은 두산건설과 함께 3만 6348㎡에 아파트 648가구와 기반시설을 건설한다. 조합은 지난달 24일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림7구역-제일건설 ▲산수1구역-대광건설 ▲계림8구역-호반건설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계림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 일반분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1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빼더라도 계림2구역의 재개발사업은 라인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단계인 곳도 있었다. 동구 계림4구역은 올해 초 영무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북구 우산구역은 지난 7월 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을 시공파트너로 결정했다.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개발사업자인 서구 광천구역은 이달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11월4일까지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최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광산구 신

가구역은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가구역 재개발사업에는 대립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등 굴지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지원1구역도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7일 까지 입찰 신청을 받는다.

이 날 현재까지 30곳의 광주지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일반분양을 마친 곳은 ▲서구 마륵·지평(상부 SK뷰) ▲동구 학동3(무등산 아이파크) ▲북구 풍향2(금호어울림) ▲북구 문화동·각화(각화 골드클래스) 등 4곳이다. 이 중 서구 마륵·지평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상부 SK뷰는 내년 입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3곳, 남구 3곳, 북구 7곳, 광산구 3곳 등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며 "실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관심도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9.05 (-2.58)
- ▼ 금리 (국고채 3년) 1.64% (-0.01)
- ▼ 코스닥 672.82 (-0.14)
- ▲ 환율 (USD) 1149.70원 (+6.20)



한전-국내외 전력기관 기술교류 MOU 한국전력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BIXPO 2015'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에서 국내외 전기·전력 분야 기업 및 기관과 기술교류 정례화 등을 위한 대규모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브라질 FURNAS사와 기술협력 MOU 협약서를 들고 있는 조한익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플라비우 데카 지 모우라 FURNAS 회장. <한국전력 제공>

JB금융지주 1823억 유상증자

해외 우량 기관 3곳과 파트너십...재무지표 개선 전망

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제3차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발행가격은 주당 기준가액(6,008원) 대비 4.9%의 할증률을 적용한 6,300원 기준으로 1,823억원 규모(28,935,476주)이다. 신주 배정 대상자는 해외 유수의 3개 기관 투자자이다.

금번 유상증자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중장기 우량 투자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번 제3차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BIS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CET 1)은 2015년 6월말 대비 각각 70bp 상

승한 13.08%, 7.73%, 부채비율과 이종 레버리지 비율 역시 각각 3.6%p, 16.2%p 개선된 24.6%, 111.2%로 예상되어 그룹 재무지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주 발행 일정은 오는 11월 16일 주권납입과 12월 1일 신규 상장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1년간 보호에 수될 예정이다.

한편 JB금융지주는 이날 "LIG투자를 위한 국내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중장기 우량 투자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밖에 1~2곳의 사모펀드가 LIG 투자증권 매각관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도 전국기능대회 8위

금 5...전년보다 4단계 상승

전남도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울산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 등을 획득해 종합 8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4단계 뛰어 오른 것으로, 7위에 오른 2002년 제37회 전국대회 이후 13년 만의 최고 성적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39개 종목 10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 결과 기계설계 나주공고 3학년 서재은, 배관 나주공고 3학년 광성훈, 육내제어 여수공고 3학년 최재명, 제빵제과 여수정보과학고 3학년 이승하, 미장 일반 최양준 씨가 각각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우수상 3개를 수상했다.

또 나주공고가 기관표창 동탑을 수상했으며, 이승하군은 금메달 수상자 가운데 최고 득점자 1명에게 수여되는 대통령 표창 영예를 안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13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에 해남 세무서 관내 수산업 관련단체 대표들과 세정 소통의 시간을 갖고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효성, 전북 中企와 손잡고 '아웃도어' 옷감 댄다

코튼권과 50만벌 규모 기능성원사 납품 MOU

효성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3일 익산에 있는 원단제조기업 ㈜코튼권, 한국트산산업연구원과 '기능성 합성 섬유 원단 납품'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효성은 코튼권에 기능성 원사를 납품하고 코튼권은 이 원사로 원단을 만

들어 효성에 다시 납품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원단은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JDX 등 국내 스포츠웨어 제작에 쓰인다. 납품 규모는 15억원 상당으로 50만벌을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이다. 효성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

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섬유를 포함한 특과 산업 활성화를 모색해왔다. 효성은 전주의 중소기업 CES에 기술과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회사는 효성으로부터 탄소섬유를 지원받아 발열케이블을 개발, 파프리카 농장 등 난방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빨라지는 중소기업 하도급 피해 구제

내일부터 분쟁조정 처리 대상 3배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분쟁조정 처리대상 확대방안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 연간 매출 5000만원 미만에서 1조5000

억원 미만으로, 용역업종은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씩 확대한다.

건설업종은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바꾼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 처리기준이 약 2.5배 가량 확대된 셈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www.dvv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펌프장, 배수장, 양만장, 양안장, 배수갑문, 양수장, 저수지, 골포장, 상하수도

특장점: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D2M, daeyoung (062) 670-0300